

제26기 해외역사문화탐방 결과보고서

- 작성자 : 사회복지대학 사회복지전공 김OO
- 지 역 : 일본(오사카, 교토, 코베, 나라)
- 일 정 : 2024.06.19.(수)~2024.06.22.(토) 3박4일
- 숙 소 : 미야코시티 오사카 혼마치 호텔

일본 탐방 1일차

1. 인천국제공항2터미널 출발, 간사이공항 도착

인천국제공항제2터미널에서 순탄하게 출발하여 간사이국제공항에 도착하였는데 Visit Japan Web으로 사전입국심사 준비를 해왔건만 스크린샷으로 저장한 QR코드가 입력이 안되는지 입국코너에 있는 젊은 여직원이 인상을 쓰면서 여권과 입국심사지를 건네주었습니다.

한 일본인의 불친절로 일본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지만 수습을 해야겠기에 혼자서 우왕좌왕하다가 한국 여행객의 도움을 받아 어렵사리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입국심사지 작성하는 방법과 Visit Japan Web에 접속해서 QR코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익힐 수 있었습니다. 역시 저는 긍정모드의 한국인입니다.

2. 오사카 치카즈아스카 박물관, 옛비즈니스센터에서 교류시간

오사카로 이동하여 오사카부 하비키노시에 위치한 치카즈아스카 역사박물관 내부를 관람하였습니다. 일본의 고대 역사 중 아스카시대와 관련된 고분과 석조물, 토기, 도자기, 금속 공예품, 벽화 등을 지하1층~3층까지 전시하고 있는데 박물관 외형은 흰색으로 멋있게 쌓아올린 특이한 구조물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세계 건축 100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안도 타다오’ 건축가가 제작한 강철과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외형물입니다.

옛비즈니스센터 오사카 혼마치 회의실에서 함께 해외탐방 온 학우들과 교수님, 교직원, 가이드님들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양각색의 해외탐방 지원 이유와 하고싶은 경험들을 나누며, 새삼 일과 병행하며 원하는 목표를 위해 학업을 하고 다양한 봉사를 하며 살아온 모범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생들이 모였다는 자부심이 들며 서먹한 분위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숙소인 오사카 도심 오사카역 5분 거리에 인접한 미야코시티 오사카 혼마치 호텔은 침구, 잠옷, 조식 그리고 편의시설이 완비된 훌륭한 곳이었습니다. 2층 로비에서 학우들과 구비된 차를 마시며 늦도록 담소를 나눴습니다.

일본 탐방 2일차

1. 아라시야마 : 치쿠린, 텐류지, 도게초교

높고 뾰뾰하게 대나무가 심어진 대나무숲 치쿠린은 워낙 유명한 관광지라서 많은 관광객들이 줄을 지어 관광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담양의 죽녹원은 짜임새있고 시원한 아름다움이 있다면 치쿠린은 울창한 원시림처럼 다듬어지지않은 자연스러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맺게 해주고 아이를 점지해주는 소원을 들어준다는 신사로 노노미야 신사가 있었습니다.

텐류지(천룡사)는 1339년에 세워진 사찰로 고다이고 천황의 명복을 기리기 위해 만들었는데 화재로 소실된 건물을 재건했다고 합니다. 내부에 조원지 정원은 아라시야마와 가메야마의 경치를 옮겨 놓은 곳입니다.

두꺼비가 들어있는 물 위에 동전을 던져 소원을 비는 곳도 있었습니다.

도게초교는 교토의 사계절을 감상할 수 있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목재 다리입니다. 물이 얇아 학이 물 한가운데 외발로 서있고 고즈넉한 분위기

가 흠뻑 묻어나는 정말 인상적이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인상적인것은 빨간색 의자의 인력거는 대부분 여자들이 끌고다닌다고 합니다.

2. 교토 : 키요미즈테라, 니넨자카, 산넨자카, 긴카쿠지, 철학자의 길

키요미즈테라(청수사)는 교토에 남아있는 사찰 중 드물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외관과 일본 전통 공법으로 목재끼리 서로 지지하게 튼튼한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오토와노타키(오토와의 폭포)라는 천정 세 곳에서 가늘게 흘러나오는 물을 받아 마시면 사랑 지혜 건강이 생긴다고 합니다. 청수사로 올라가는 길은 비좁고 사람들은 북적거리고 우리나라의 북촌을 연상하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청수사에서 내려오는 길인 산넨자카에서 넘어지면 3년 안에 죽고 니넨자카에서 넘어지면 2년 안에 죽는 다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내려오는 길은 서로 이어진 길이 아니어서 왔던 길을 돌아가면 찾기 어려운 미로였습니다.

긴카쿠지(은각사)는 사리전에 금박을 바른 긴카쿠지와 비교되게 은박을 따로 바르지 않았습니다. 입장권으로 안내도와 부적처럼 생긴 것을 주었는데 실제로 가내평안을 기원하는 부적이라고 합니다. 하얀 모래가 깔린 가레이산 스이정원은 물을 사용하지 않고 돌과 모래로만 산수 풍경을 표현하는 정원 꾸미는 양식의 하나라고 합니다.

긴카쿠지에서 내려오는 길목에 일본의 철학자 니시다 기타로가 즐겨 걸었다고 이름이 붙여진 약 1.8km의 철학자의 길을 100m 정도 걸어보았습니다. 좁은 개천길인데 아침 일찍 혼자걸으며 사색에 잠기기 좋은 코스였습니다.

일본 탐방 3일 차

1. 아리마 : 아리마온천가 탐방 및 온천체험

나라 시대부터 유명한 온천 마을로 일본 3대 명탕으로 유명한 아리마온천은 금천과 은천의 온천수질로 피부 보습과 자연 치유력 증진에 탁월하다고 합니다. 일행이 방문한 곳은 타이코노유 온천으로 우리나라 찜질방처럼 큰

목욕탕을 가지고 있고 노천탕도 있었습니다. 즐겁게 온천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탕과 제공해준 유키타를 입고 쇼핑코너, 식당등을 이용할 수 있어서 수질이 우수한 온천욕으로 피로도 풀고 쇼핑과 담소도 나누는 여유로운 온천 코스였습니다.

2. 코베 : 하버랜드, 모자이크 코베 : 하버랜드, 모자이크

고베항은 일본 효고현 고베의 항구지역으로 메이지 시대 개항때부터 정식 국제무역항이고 3대 여객 항구 중 하나여서 항구 주변에 외국인 거류지가 조성되어 이국적인 분위기가있는 곳입니다. 맞은 편에 고베포트타워, 메리켄파크와 오리엔탈호텔이 이국의 풍경으로 다가옵니다. 낮인데도 바다를 지나가는 크루즈가 멋스럽습니다. 고베역 뒷문 쪽에서 육교를 건너 건물을 통해 대형 쇼핑몰인 하버랜드쇼핑몰에서 모자이크 쇼핑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외부에 설치해 놓은 빨간 의자의 커다랗고 둥근 관람차는 놀이공원에서 보는 것과 흡사하여 마치 놀이기구 같았습니다.

3. 오사카 : 도톤보리, 신사이바시

화려한 네온사인, 맛집, 운하, 글리코 상이 있는 오사카 변화가인 도톤보리는 오사카 관광객이 밤낮없이 발디딜틈없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에비스바시교를 기준으로 거리의 간판들이 크고 글씨도 크고 입체가 많고 휘황찬란했습니다. 에비스바시교에서 바라본 수로의 풍경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유 쇼핑 시간에 도톤보리리버크루즈를 타고 400년된 도톤보리리버를 한 바퀴 돌았는데 도톤보리교옆에 도톤보리에 설치된 이후에 오사카를 대표하는 상징이 된 '쿠리코 러너'라고 불리는 글리코 간판 캐릭터를 사진을 찍을 시간을 주기위해 정차된 크루즈안에서 기념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수로를 따라 화려한 야경이 멋스럽고 수로 양옆으로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과 육교위에 서서 수로를 내려다 보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도톤보리리버 야경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청계천만큼 좁은 수로여서 맞은 편에서 가깝게 지나가는 리버크루즈의 관광객들은 서로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세계 각 곳의 여행자들은 오사카에 오면 도톤보리에서 만나고 쇼핑한다고 합니다. 8개 블록에 이르는 오사카 시내의 상점가인 신사이바시는 쇼핑객의 천국이었습니다. 마치 구름떼처럼 사람들이 씩없이 몰려오고 몰려갑니다.

오사카 최고의 쇼핑거리로 백화점, 쇼핑몰, 잡화점, 맛집, 중소 상점등이 빈틈없이 몰려있었는데 오사카 면세 쇼핑을 위해 도톤보리 돈키호테를 찾았습니다. 특이하게 건물밖에 관람차와 익살스런 캐릭터들이 있는 간판이 있었습니다. 내부엔 온갖 물건들이 좁은 공간을 활용해 다양하게 진열되어있습니다. 1층부터 6층까지 사람들이 발디딜틈없이 쇼핑중이고 계산대도 붐빉니다.

일본 탐방 : 4일차

1. 오사카 : 오사카성, 오사카공원

오사카에서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이며 벚꽃 명소 중 하나인 오사카성은 전쟁 대비용 성으로 만들어져있고 조공으로 받은 커다란 돌들로 성의 외벽을 꾸몄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을 침공해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가문의 몰락에 대한 역사를 보면서 인과응보임을 느꼈고 병자호란, 임진왜란의 주동자여서인지 오사카성에 대해 한국인으로서의 반감을 억누르기 힘들었습니다. 일본과 우호관계였다면 두 나라는 더욱 발전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오사카공원은 오사카성을 동글게 둘러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2. 나라: 동대사

일천 마리가 넘는 사슴들이 방목되어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는 나라 사슴공원이 있는 동대사는 가로로 50m가 넘는 세계에서 제일 큰 절로 세계에서 가장 큰 목조건축물입니다. 199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제일 큰 동상은 높이 15m, 무게 450톤이라고 합니다.

풀어놓은 사슴들은 사슴들의 먹이로 쓰이는 쉰배과자를 구매하는 관광객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인사를 하며 여러마리가 달려듭니다. 뿔 달린 사슴은 사나울 수 있고 여기저기 땅바닥에 사슴똥들이 즐비해서 계속 치우며 다니시는 분이 계시지만 역부족인 곳입니다. 사슴들과 사람들이 스스럼없이 어우러지는 자유로운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슴들을 본 것은 처음입니다.

일본 역사문화탐방 소감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대표하는 각양각색의 역량있는 학우님들과 3박4일 동안 일본의 문화탐방을 함께하며 사이버대학교의 특성상 오프라인에서 만나 교류하기 어려운 면을 단숨에 극복하고 유익하고 단합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대부분 일과 학습과 가정생활을 소홀함없이 성실하게 수행하는 나날을 보내던 학우들은 모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일정이 끝나면 2층 로비에 모여 다양한 담소를 나누던 유익한 시간들과 도톤모리 야경을 보며 크루즈를 타던 추억이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며 양보하며 매일 더 밝은 얼굴들이 되어 행복해했습니다.

일본 각 곳의 맛있는 음식들을 두루 먹을 수 있어서 좋았고, 각 문화지마다 상세한 설명을 해주어 역사적 함양을 높여주신 가이드님이 있어서 어느 곳을 가도 낯선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박태정교수님은 일본문화탐방의 리더로서 탐방 현장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마지막 헤어지는 순간까지 변별력있게 조치하여 주셨고 사비로 사주신 맛있는 음식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미소짓는 얼굴로 묵묵히 언제나 맨 뒤에서 학우님들의 인원을 점검하고 사진도 멋지게 찍어주신 김종민 주임님 감사드립니다. 착한여행 한소정과장님은 항상 웃는 얼굴로 모든 질문에 답해주고 불편함이 없이 해주셨고, 오랫동안 일본 현지에서 활동하시는 최민가이드님의 해박한 지식은 놀랄 따름이었습니다. 알차고 실속있는 일본탐방을 마련해주신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